



대전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대전지사	참사랑회
동대전지사	밀알, 레인보우
북대전지사	한사랑
청주지사	사랑의 천사
옥천지사	남부사랑회
충주지사	사랑을 나누는 모임
공주지사	연금사랑 봉사단
천안지사	연금이 클린봉사단
홍성지사	홍성사랑나눔
보령지사	보사모
대전콜센터	대전1355 봉사회



대전지역본부

참사랑회 _ 대전지사

주요활동

- 결식아동 정기 후원
- 노인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 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밀알, 레인보우 _ 동대전지사

주요활동

-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등



대전사랑, 아이사랑

대전지사 봉사단 '참사랑회'는 관내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장학금을 매월 지급하던 중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2008년 6월 '대전사랑 아이사랑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2007년 태안지역 기름유출 피해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2008 행복한 태안 + 행복한 배움터'라는 후원 명으로 학용품비, 교복비, 학습비, 수학여행비, 대학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지역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었으며, 더 나아가 2009년 3월부터 관내 결식아동들에게도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아울러 참사랑회는 2005년 봉사단을 결성한 이후 꾸준히 관내 복지단체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관내 「대전은혜노인전문요양원」 및 「논산썬벨요양원」에 매월 1회 4~5명씩의 직원이 말벗, 청소, 생일잔치, 위문잔치 등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주위의 봉사하는 분들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참사랑회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어 봉사단원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향후에도 모든 회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참사랑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눔과 누림의 활동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기

동대전지사 사회봉사단은 '밀알' 과 여직원 봉사단 '레인보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봉사활동은 봉사단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추진하지만, 특별 프로그램 수행 시 레인보우 독자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목욕봉사 활동과 농촌봉사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소년가장과 독거노인 후원, 자원봉사 활동 등, 2008년도에는 사랑의 목도리 나누기, 김장감치 담그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나눔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 만들어진 레인보우는 그동안 「연광원」 등 사회복지단체를 찾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돕고 김장 만들기 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2008년도 1월 이른 아침 사무실에 녹즙 배달을 온 아주머니의 목도리를 보고 집에 계신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면 목이 더 춥다."며 겨울철이면 늘 손수건을 목에 묶는 모습을 떠올린 흥정자 차장의 아이디어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목도리를 떠서 노인시설에 전달하기로 의기투합했다. 그렇게 시작해서 여직원들은 매일 일과 후 1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서 정성을 다해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특히 임신 9개월을 맞은 신문선 대리는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다 보니 태교에도 좋을 것 같다."며 정성을 더하였다. 그렇게 완성한 목도리 100개를 독거노인시설 등에 전달하였다. 직원들이 일과 후에도 정성어린 손길로 목도리를 떠서 전달한다는 미담이 알려져 지역신문인 대전일보에 소개되었다.

봉사단은 2008년 5월에 2006년부터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던 「연광복지재단」으로부터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다며 감사패 및 표창을 수여 받았다.

우리 동대전지사의 '밀알' 과 '레인보우'는 앞으로도 우리의 정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뵙고 땀방울을 보탬 것이다.

주요활동

- 사회복지관 아동 후원 및 배식봉사
- 장애인복지관 후원 등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 피는 희망의 씨앗

북대전지사 '한사랑' 봉사단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 법동 소재)과 자매결연을 하여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중리사회복지관은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센터이다.

한사랑 봉사단은 초기 11명에서 현재 22명으로 확대되어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사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활동은 복지관 시설 2층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매주 1회 배식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매월 5만원 씩 금전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 주변 미화작업이나 설 명절 김치 담그기 행사 등 비정기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비록 바쁜 일과로 몇 시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깨끗하게 생활하고 하루하루 밝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숨은 일꾼으로 온 힘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 외 최근까지 「성우보육원」, 「천성원」, 「필그림복지원」, 「법동초등학교」 등을 후원하였고, 현재는 「대덕구장애인복지관」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전지역본부

사랑의 천사 _ 청주시사

주요활동

- 청주향교 문화재 지킴이 활동
- 청주향교 어르신 배식 봉사
- 불우이웃 및 시설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등



남부사랑회 _ 옥천지사

주요활동

- 노인장애복지관 후원
-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밑반찬 배달 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효(孝)실천, 청주향교 어르신 무료배식

청주시사 봉사단 '사랑의 천사'는 2008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소재하는 청주향교에서 어르신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청주시가 펼치는 '청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2008년 5월에는 사랑의 천사 봉사단이 청주시로부터 청주향교 지킴이로 위촉을 받았으며 이후부터 청주향교의 주변정화와 제조작업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청주향교에서는 인근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랑의 천사'는 화요일에 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2009년 9월까지 모두 67회에 걸쳐 연인원 270여 명의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직원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점심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는 통장을 보여주시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랑하실 때는 공단직원으로서 자부심도 느낀다.

건강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옥천지사 봉사단 '남부사랑회'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펼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직원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남부사랑회는 사회공헌기금을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조성하는 사회공헌후원금 외에도 '회춘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회춘프로젝트'란 매년 직원 18명이 건강 나이를 측정 후 운동요법 등의 관리를 통하여 일정기간 내 건강 나이를 낮추고 직원들이 젊어진 만큼 자축의 의미로 5천~5만원씩 내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8년에는 이렇게 모인 46만원의 기금을 노인과 장애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하였고, 2009년에도 기금조성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옥천지사 남부사랑회는 이 밖에도 어려운 계층인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후원을 통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희망을 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옥천아카데미' 공부방을 지원함으로써 불우청소년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였고, 알뜰시장 등을 통한 내 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기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랑모임(사랑을 나누는 모임)

_ 충주시사

주요활동

- 아동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어린이재단을 통한 아동 후원
- 독거노인 등 사랑의 도시락 배달
- 1사1촌 자매결연 봉사활동



연금사랑 봉사단 _ 공주시사

주요활동

- 저소득 아동 방과 후 학습지도
- 사회복지시설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충주호 같은 맑은 마음으로

충주시사 봉사단 '사랑모임'은 충주시 동량면 소재 아동복지시설 「진여원」과 2008년도에 자매결연 하고 매월 방문하여 제초 작업과 시설 청소 등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여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아동들의 생활시설로 교육 지원 및 자립생활을 위한 곳으로 현재 26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사랑모임은 복지시설 주변정리, 제초작업 및 밭 갈이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설 명절에는 후원 물품도 전달하였다.

또한,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어린이 후원 협약을 맺고 8명의 어린이를 매월 후원하고 있으며, 충주 이류면 성종1리 농촌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하여 농번기에는 바쁜 일손을 돕고 수확기에는 사과 등 특산물을 구입해 주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자매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어 두터운 자매결연의 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 밖에도 충주시사 사랑모임 봉사단은 제천시, 단양군 지역의 「명락노인복지관」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대외적인 공단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미래동이의 꿈은 우리의 희망!

공주시사 '연금사랑 봉사단'은 공주시 옥룡동 「금강종합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 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강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자립능력을 배양,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정, 청소년상담실, 아동공부방, 교양교실, 무료급식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연금사랑 봉사단은 이곳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해주면서 순박하고 때 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이제 봉사의식보다는 소명감이나 사명감으로 여기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긍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연금사랑 봉사단은 지사 관내에 있는 「누리재활원」, 「노인무료급식시설」, 「영명보육원」에도 매년 필요한 물품이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숨은 일꾼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전지역본부

연금이 클린봉사단 _ 천안지사

주요활동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수급 아동 후원
- '클린 천안 운동' 전개



홍성사랑나눔 _ 홍성지사

주요활동

- 소년가장 정기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환경정화 활동 등



'클린 천안' 에서 천안 사랑 나눔까지!

2006년 2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 천안지사 '연금이 클린봉사단'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 외국인근로자 등을 후원하여 더불어 사는 나눔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구성되었다.

아직은 많이 미약하고 부족한 활동이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자가정, 독거노인, 저소득 가입자와 수급자, 「사회복지법인 익선원」, 외국인근로자 등 다방면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지역주민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특히, 연금이 클린봉사단은 천안시에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역점적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클린 천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12월 천안시장 표창패를 수여받는 등 도시 생활 속에서 섬김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년간의 꾸준한 소년가장 후원활동

홍성지사 '홍성사랑나눔' 봉사단은 2004년 8월부터 지난 5년 동안 관내 소년가장 2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국민연금인으로서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는 공감대에 기초하여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단 한 명의 빠짐도 없었다. 그동안 지사장 등 구성원의 변동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뜨림 없이 후원을 계속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었다.

대내적으로 나눔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인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입출금 및 적금형식 등 소년가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월 각자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지난 5년간 지원한 총액은 모두 1,300만원이다.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어 사회의 동량이 되도록 물질적 지원 외에도 진학문제 등 수시로 개인 상담을 하여 진로결정 등에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봉사단은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인 「덕산신생원」에 대한 정기후원, 관내 지역축제 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으며, 관내 장애인단체 및 노인복지단체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사모(보령을 사랑하는 모임)

_ 보령지사

주요활동

- 무의탁 독거노인 밀반찬 배달
- 내고장 농수산물 팔아주기
- 고아원 등 소외계층 돌보미 행사
-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등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등



대전1355 봉사회 _ 대전콜센터

주요활동

- 소년소녀가장 후원
- 저소득계층 급식 배달 서비스



나는야, 사랑을 나누는 급식배달부

매주 화요일 오전 보령지사 '보사모' 봉사단원들은 도시락 배달부로 변신한다. 직접 운전하면서 20여 군데의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정성과 사랑이 듬뿍 베어 있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다.

보령지사 보사모 봉사단의 사회봉사 활동의 역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사 구현을 모토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자생적 봉사동호회(보령을 사랑하는 모임)를 구성하여 재해복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밀반찬 배달 봉사는 2007년 2월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과의 '나눔 실천 자원봉사'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밀반찬을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집집이 방문 배달하는 일이다.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공양, 자녀양육 등 희생만 하고 자신의 노후는 준비 못하신 어르신들로서, 찾아 볼 때마다 우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깨닫곤 한다.

2009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삼동회」(구,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였으며 9월 말 발간 예정인 보령실버넷 제6호에 보령지사 활동사항이 특집 기사로 실릴 예정이다.

희망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연

대전콜센터(대전1355 봉사회)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서구 관내에 종합복지시설인 「용문종합사회복지관」과 결연을 하고 약 4년간 소년소녀가장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 배달과 차량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복지관의 추천으로 매월 후원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초대하여 '결연아동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봉사회원들은 호기심에 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대전콜센터 사무실을 견학시키고 콜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봉사회원 일부는 업무 종료 후에도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애로사항을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1355 봉사회는 명절과 연말연시에도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과 정다운 시간을 가지면서 후원자와 후원받는 자의 형식적이고 경직된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대전1355 봉사회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과 즐거움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계속할 것이다.